

사회

# 학생 '장발·퍼머 머리' 찬반 논란

## 광주시교육청 인권조례안 두발 전면 자유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두발을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두발 길이 외의 사항은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맡긴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항이다.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엄색, 퍼머 허용 등 두발 완전 자유화를 시행하면 방과 후 유해업소 출입 등 탈선을 부추겨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두발 길이 외의 사항은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맡긴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항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광주학생인권 조례'(초안)를 마련했다. 취지는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두발 전면 자유화가 학생들의 생활태도 등 학교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광주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형태 등을 학칙으로 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장(56)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하는 등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되면 자연스레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며

조례안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복장(교복) 등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머리 모양의 경우 장발은 물론, 퍼머, 염색 등 모든 것을 학생에 맡겼다.

로, 머리 모양과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두발 자유화에 찬성하는 교사, 학부모들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여·43)씨는 "학생들이 복장과 용모에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다"며 "자기 절제나 통제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발규제는 전근대적인 행태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유모(50)씨는 "80년대 교복자유화가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때문에 없던 일로 됐지만, 머리 모양이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며 "학생들의 두발규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안이 학생들의 학교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권리를 강조한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권리강화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이 이기적으로 인권을 내세울 경우 학습권과 교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최근 2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안(초안)을 만들었으며, 오는 5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시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최종 손질을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찬성**  
두발규제는 구시대 유산  
공부·생활태도 영향없다

**반대**  
"학습 분위기 흐트리고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



"지구를 사랑합니다" 제41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부대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전시물을 둘러보며 지구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판사가 지하철서 성추행 ... 사표 수리

**서울서 현행법 체포**  
대법원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지난 22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

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받았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황 판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전동차에 뒤따라 탑승했다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판사는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으며 지하철 경찰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오전 중 귀가했다"고 전했다. 황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환수

**여자화장실서 '물카' 서부경찰, 2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문모(2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3일 밤 9시4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커피 전문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모(19)양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

## "해열제 등 상비약 상점판매 허용하라"

### 광주시민연대 회견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광주·전남 심야응급 약국이 극소수여서 주민불편이 크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 19일 6면)에 따라 시민단체가 상비약의 상점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는 23일 오후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이 일반의약품과 같이 분류된 약법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주민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광주의 경우 652개의 약국 중 0.5%에 불과한 3개, 전남 지역은 801개의 약국 중 3개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면서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구체적으로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디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허용 ▲의약품 2분류체계(전문약품, 일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의 변경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무사해서 고맙다"

한진텐진호 무안 최문석·목포 이진주씨 가족 소말리아서 피습 소식 ... 놀란 가슴 쓸어내려

지난 21일 인도양 항해 중 소말리아 해적에게 공격을 받았다가 구출된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한진텐진호(7만5000t급)의 선원 최문석(25·무안군)씨와 이진주(여·22·목포시)씨의 가족은 24일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진텐진호 3등 항해사인 최씨는 2009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뒤 한진텐진호에 승선, 2년째 항해사 일을 하고 있다. 최씨의 가족들은 한진텐진호의 연락 두절로 패닉 추정심이 나온 지난 21일부터 최씨 소식이 들릴새라 온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가족들은 청해 부대 소속 군인들이 한진텐진호 내부 시타델(Citadel·긴급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있는 선원들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한진해운 측의 연락을 받고 크게 안도했다.

최씨는 지난 23일 아버지 최경문(50)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걱정하지 마라. 다음달 10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가족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삼호드림호가 해적에 납치돼 선원 전원이 고생한 것처럼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아들과 통화한 후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목포 출신 3등 항해사 이씨의 가족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는 올해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지난 3월 첫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어머니 임혜정(49)씨는 "속 깊은 큰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종일 조마조마했다"며 "무사하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문(50)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걱정하지 마라. 다음달 10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가족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삼호드림호가 해적에 납치돼 선원 전원이 고생한 것처럼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아들과 통화한 후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목포 출신 3등 항해사 이씨의 가족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는 올해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지난 3월 첫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어머니 임혜정(49)씨는 "속 깊은 큰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종일 조마조마했다"며 "무사하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주책가에 불법 게임장 북부경찰 2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주책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윤모(29)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의 동거녀 손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광주 서구 일곡동 주책가 밀집지역에 330.6㎡ 규모의 단독주택을 임대해 뒤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손님이 취득한 상품권 등의 경품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14만원과 불법 게임기 27대, 대포폰 2대, 고객영입장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광주 서구 일곡동 주책가 밀집지역에 330.6㎡ 규모의 단독주택을 임대해 뒤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손님이 취득한 상품권 등의 경품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14만원과 불법 게임기 27대, 대포폰 2대, 고객영입장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술집서 애정행각 10대들에 호통

○...술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10대들에게 호통을 치며 면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23일 밤 10시경 광주 서구 서석동 모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행위를 하던 김모(17)군과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군에게 "그만 하라"고 시비하다 면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요즘 애들은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세태를 지적.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술집서 애정행각 10대들에 호통을 치며 면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23일 밤 10시경 광주 서구 서석동 모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행위를 하던 김모(17)군과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군에게 "그만 하라"고 시비하다 면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요즘 애들은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세태를 지적.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